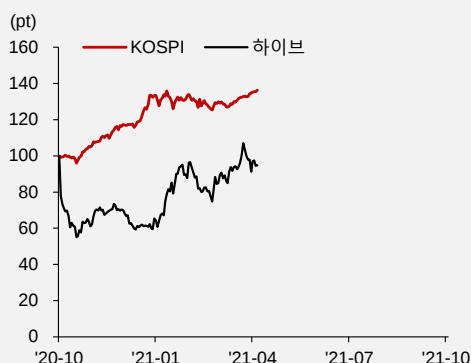


BUY(신규)

목표주가	340,000 원
현재주가	242,000 원
Upside	31.2 %
Key Data	2021 년 04 월 20 일
산업분류	코스피 서비스업
KOSPI(pt)	3,220.70
시가총액 (억원)	91,601
발행주식수 (천주)	35,624
외국인 지분율 (%)	7.3
52 주 고가 (원)	273,240
저가 (원)	140,580
60 일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129.2
주요주주	(%)
방시혁 외 2 인	34.8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8.2 33.9 -
상대주가	2.1 -1.9 -

Relative Performance



LEADING RESEARCH

Analyst 유성만

smyoo@leading.co.kr

+822-2009-7393

하이브(352820)

우주의 기운이 모인 회사!!

투자 포인트

1. 모든 Entertainment Business 의 황금열쇠 BTS: 오늘의 하이브를 만든 BTS 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열쇠. Online 콘서트, 메타버스 등 BTS 가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흥행을 거두었고 또한 신규 비즈니스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조직을 갖추더라도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Artist'를 보유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Artist 가 바로 BTS 이며 K-POP 아티스트 중에는 유일무이한 존재

2. BTS 의 군입대 공백을 메꿀줄 탄탄한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 2022 년 중순까지는 BTS 멤버들이 '동반입대'를 할 경우, 입대 전 사전제작 효과로 실제 공백은 만 1 년 수준. '빅뱅-EXO-BTS'로 이어지는 K-POP 남자 아이돌의 계보를 이을 '세븐틴'을 시작으로, '뉴이스트&TXT&엔하이픈' 및 걸그룹 '여자친구'의 국내 라인업을 보유.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스타인 '저스틴 비버&아리아나 그란데'도 합류. 올해 3 분기~2022 년까지 국내외 최소 5 개의 남녀신인 아이돌 데뷔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춰짐. 무엇보다 BTS 는 '비틀즈와 마이클잭슨 레벨의 월드스타'라서 군 복무 후에도 지속적인 흥행과 수익 창출이 가능

3. 위버스를 통한 글로벌 엔터플랫폼으로 도약& 엔터산업내 절대적 지위구축: 기존 하이브(구: 빅히트)소속 아티스트 관련 비즈니스에 '블랙핑크'를 비롯한 YG 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입점 효과. '저스틴 비버&아리아나 그란데'를 필두로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기존 '음원&음반&소규모 MD'에 국한된 수익구조를 확장시키기 위해 위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국내 엔터 경쟁사들도 자체 플랫폼 확보에는 '구축&유지비용' 이슈로 하나둘씩 위버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이브는 위버스를 통하여 국내외 엔터산업의 트렌드를 선도 및 경쟁사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를 빠르게 흡수할 것이며, 향후 2~3 년내에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40,000 원 제시

2021 년 실적은 매출액 1 조 2,234 억원 (YoY +53.6%), 영업이익 2,528 억원 (YoY +77.4%, OPM 20.7%)를 전망. 목표주가 340,000 원은 2021~22 년 예상 평균 EPS 5,687 원에 Target PER 60 배를 적용하여 산출. 동사의 실적은 국내외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증대 및 위버스를 통한 매출증가 그리고 향후 Covid-19 종료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 재개 및 중국활동 재개로 인한 Upside 가 높다고 판단

구분	2018	2019	2020	2021F	2022F
매출액 (억원)	3,014	5,872	7,963	12,234	17,592
영업이익 (억원)	799	987	1,455	2,528	3,528
영업이익률 (%)	26.5%	16.8%	18.3%	20.7%	20.1%
지배순이익 (억원)	-705	738	857	1,775	2,658
PER (배)	-	-	66.5	51.5	34.5
PBR (배)	-	-	4.8	6.7	5.6
ROE (%)	-110.3	56.5	12.5	13.8	17.6
EPS (원)	-3,373	2,951	2,984	4,983	6,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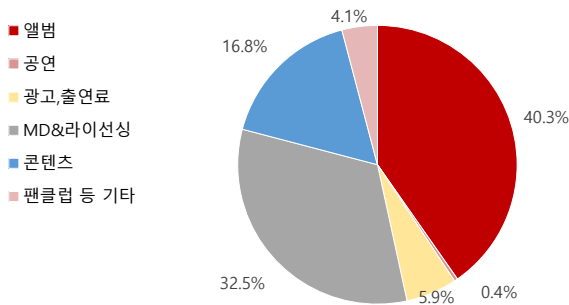
자료: 리딩투자증권, K-IFRS 연결기준

기업 개요 - 'K-POP'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한 장본인

동사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난 BTS를 통해 K-POP의 영역을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시킨 주역이다. 하이브 레이블에서는 TXT(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레디스 레이블에서는 '세븐틴, 뉴이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소스뮤직 레이블은 '여자친구' 그리고 케이오지 레이블에는 '지코', 빌리프랩에는 '엔하이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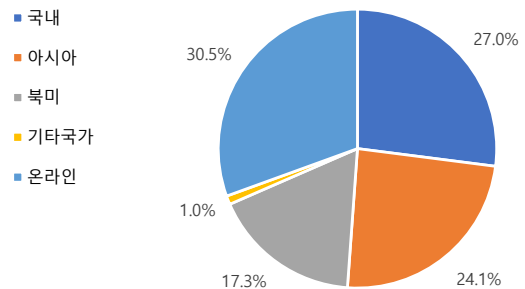
기존 레이블 사업외에도 솔루션 사업(음반/음원 유통, 콘텐츠, MD, 출판물 등의 부가적인 사업)을 통하여 매출과 수익을 성장시키고 있다. 동사의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하여 '팬 커뮤니티와 팬 커머스'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2020년 연말기준 매출 비중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2020년 연말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방탄소년단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세븐틴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하이브 보유 레이블(Label)

회사명	내용
하이브(구: 빅히트)	BTS, TXT
플레디스 엔터	세븐틴, 뉴이스트
소스뮤직	여자친구
빌리프랩	엔하이픈
케이오지 엔터	지코
빅히트 재팬	일본내 아티스트 발굴 및 사업화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천하무적 황금열쇠 BTS : 엔터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COVID-19 사태로 모든 콘서트, 팬미팅 등 오프라인 활동이 중단되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오프라인 활동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음반&음원 매출의 증가로는 감당이 안되어 '온라인 콘서트'를 시도하였다.

온라인 콘서트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큰 성공은 거둔 아티스트가 바로 BTS 이다. '방방콘 21(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최근(4 월 18 일) 최대 동시접속자 270 만명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온라인 콘서트로 타 아티스트들 및 타 엔터사들도 온라인 콘서트로 인해 BTS 를 보유한 동사처럼 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온라인 콘서트는 기존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 마진이 매우 적다. BTS 를 비롯하여 일부 상위권 아티스트들을 제외하면 때로는 BEP 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로 넘어가보자.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상당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타 엔터사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신인그룹 각 멤버별로 '가상 캐릭터'를 동반하여 데뷔하기도 하였다.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엔터업계에서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또한 메타버스와 실제 엔터 비즈니스와의 접점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실제 흥행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과 이상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시간이 흘러갈수록 메타버스는 엔터 비즈니스와 다양한 콜라보를 통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매김 하겠지만 역시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을 압도한 Artist'가 있어야, 무슨 비즈니스이든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직, 플랫폼, 사업파트너가 있을지라도 역시나 비즈니스의 근원은 Artist 이다. BTS 는 연령, 성별, 인종, 지역, 종교 등을 초월하는 '엔터산업의 황금열쇠'이다. 이러한 BTS 를 보유한 '하이브'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엔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유리하고 앞서 나가지 않겠는가.

그림 6. 방방콘(BTS 온라인 콘서트)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신곡을 발표하는 BTS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 BTS 군대 가면 어떨까요? 하이브도 이제 끝인가요?

Q: 걱정하지 마세요. 세븐틴을 비롯해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에

계속되는 신인 데뷔 라인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BTS 는 이제 '비틀즈 & 마이클 잭슨'의 레벨입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문이 바로 BTS 의 군입대에 관한 걱정이다. K-POP 대표 아티스트들이 전성기가 지나고(남자아이들은 군입대, 여자아이들은 그룹 해체), 해당 소속 엔터사의 실적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이브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매우 많다.

BTS 멤버 중에서 맏형 '진(본명: 김석진, 1992 년생)'부터 군입대 시간이 다가온다. BTS 는 한때 하이브 전체 매출의 98%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80%수준까지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BTS 외 소속 아티스트들의 성장으로 하이브의 매출도 '탈 BTS'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를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BTS 가 군입대를 하여 공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중순기준으로 하이브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공백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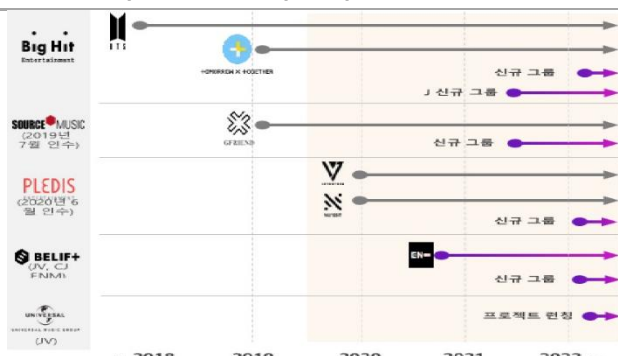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점은 BTS 의 공백을 메꿀 아티스트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빅뱅-EXO-BTS'로 이어지는 K-POP 대표 아이돌의 뒤를 이어 나갈 차세대 주자인 '세븐틴'이 하이브 소속의 '플랜디스' 소속이다. 세븐틴이 BTS 급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는 지켜 봐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성장 유망한 K-POP 아이돌인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TXT, 뉴이스트, 여자친구, 엔하이픈'가 있으며, 최근 인수합병한 Itacha Holdings 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글로벌 팝스타까지 합류한다. 올해 3 분기에 신인 걸그룹(쏘스뮤직) / 내년 남자&여자신인그룹 각각 1 팀(빅히트), 일본 현지 보이신인그룹(빅히트 재팬), 미국 현지 아이돌(UMG 와 콜라보), 신인 걸그룹(쏘스뮤직) 등 향후 탄탄한 신인그룹 데뷔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

최근에는 군입대를 앞둔 아티스트들이 다음 앨범에 사전제작 참여를 통해 공백기를 최소화 하기 때문에 BTS 도 군입대 전에 다음 앨범에 대한 사전제작 참여로 실질적인 공백기는 약 1 년 정도라고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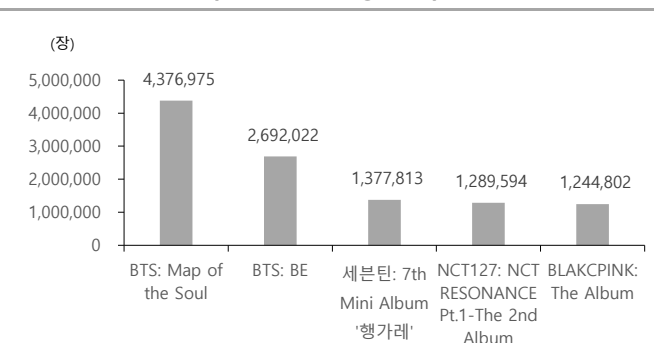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BTS 는 기존의 K-POP 스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틀즈&마이클잭슨' 급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군복무 후에도 반영구적인 활동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8. 하이브 신인데뷔 스케줄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2020 년 국내 앨범판매량 순위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저스틴 비버&아리아나 그란데는 하이브(위버스)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까?

Itacha Holdings 인수가 하이브와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시각이 있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비롯한 영미권 팝스타들이 왜 하이브를 통해 위버스에 입점하려고 할까?

기존의 영미권 아티스트들은 통상 2~3 년 주기로 앨범을 하나 내면 기본적인 '음원&음반 수익'과 '콘서트(투어) 및 콘서트장에서 소규모의 MD 판매'가 수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위버스의 '솔루션 사업부(부가사업)'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기존 수익원에 25~50%까지 Add-up 이 되는 'MD&콘텐츠&마케팅 그리고 A&R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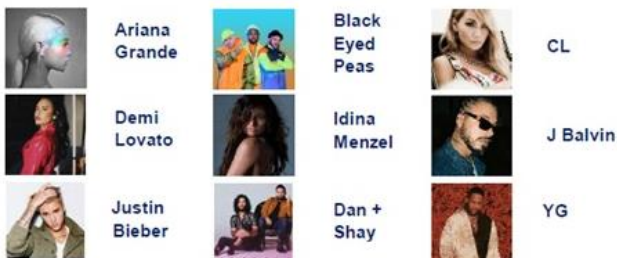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K-POP 스타들의 '부가사업(예: 굿즈)'와 같이 영미권 아티스트들에게도 동일한 사업모델의 호환이 가능한냐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복미, 유럽권은 굿즈나 부가사업에 대한 '1 인당 지출'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버스가 제대로된 '굿즈 상품,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면 복미와 유럽권에서도 현재 수준 대비 의미 있는 부가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해당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자. 좋은(Good) 퀄리티의 상품&서비스는 가치(Value)를 만들어 낸다. 이 가치는 소비(Consumption)로 이어진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향후 Itacha Holdings 소속 아티스트를 활용한 라인업 확대 및 기존 BTS 와의 '합동공연'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향후 복미 시장에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현지 아티스트 발굴&데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IP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신사업 효과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번 인수합병 건을 계기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의 의사결정과 실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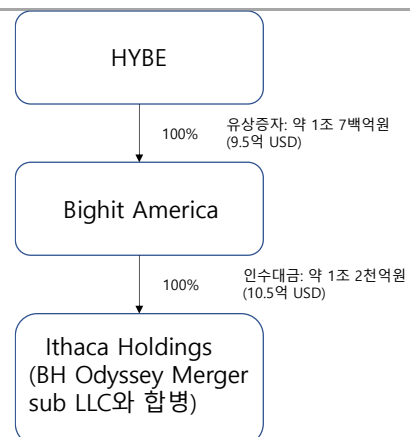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Itacha Holdings 의 매출규모가 생각보다 작다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국내와 다르게 'Agency'수준이라 '매니지먼트 업무'만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10. Itacha 의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거래 구조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위버스는 엔터 플랫폼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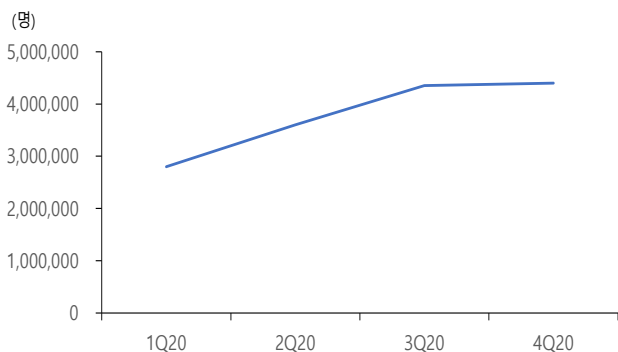
위버스는 크게 '팬 커뮤니티 플랫폼(Weverse)'와 '팬 커머스 플랫폼(Weverse Shop)'으로 구분된다. 위버스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입점해 있고, 국내에서는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곧 입점을 한다. 여기에 Itacha Holdings 소속 글로벌 스타들까지 입점하면 위버스는 글로벌 엔터플랫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위버스가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성장해 나가려면 'MAU'와 '접속자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야 한다. MAU의 성장은 위버스에 입점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고 관련 팬덤의 접속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속자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위버스내 다양한 콘텐츠(동영상, EDU, 팬클럽 등)의 확보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하이브의 그동안의 광폭행보와 향후 추가적인 M&A 및 신사업 추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버스내 콘텐츠 확장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버스를 통하여 하이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2 가지이다. 1) 위버스를 통하여 글로벌 엔터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 2) 위버스에 입점해 있는 경쟁사 or 타 아티스트들 관련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경쟁사나 타 아티스트들의 좋은 아이디어 또는 퍼포먼스까지 빠르게 습득하여 실제로 가장 많은 Monetization을 하는 곳은 바로 하이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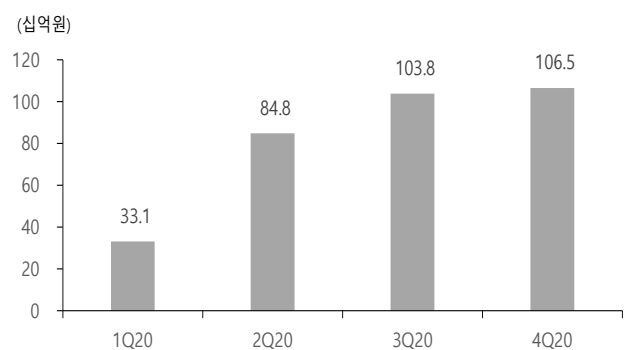
위버스에 입점하지 않은 타 경쟁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위버스에 들어갈 것이냐? 아님 홀로 남을 것이냐?. 시간이 흘러 갈수록 글로벌 엔터플랫폼의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위버스로 입점하는 엔터사 및 아티스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MAU와 접속자 체류시간의 증대로 위버스의 수익 및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림 14. 위버스 MAU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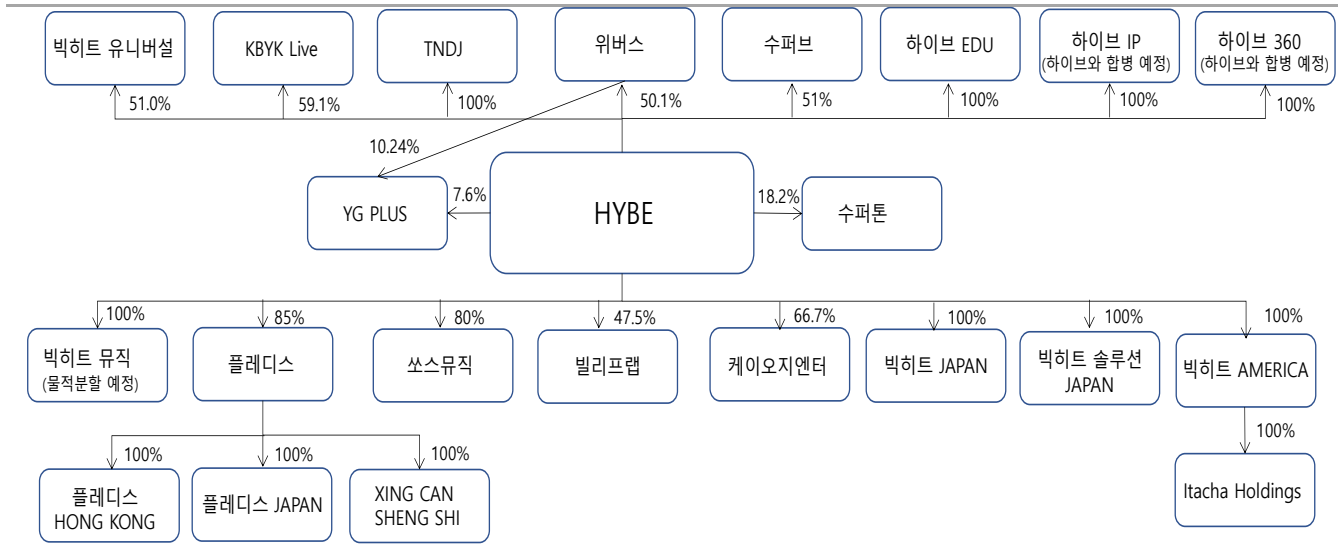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위버스 App 거래 추이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하이브 향후 지배구조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엔터회사들은 언제 오프라인 공연 가능할까요? 하이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던데...

언제부터 엔터사들이 COVID-19 이전처럼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할까? 완전하게 오프라인 활동(공연, 팬미팅)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 2 분기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올해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활동을 부분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일정규모 모객과 횟수가 충족되어야 수익이 나는데, 아직 COVID-19 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공연으로 예전과 같은 'Full Capa'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규모의 공연을 통한 수익이 가능한 대규모 모객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바로 BTS 와 '저스틴 비버&아리아나 그란데' 등 Global Top Tier 아티스트군들을 보유한 하이브이다.

현재 북미&유럽 지역은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진행되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COVID-19 이전의 삶이 가능한 상황이라 북미&유럽 지역에서도 대규모 콘서트 모객 능력이 가능한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동사의 부문적인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 시장은 언제 열리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입니까?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단, COVID-19 로 실질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COVID-19 가 정상화되는 내년 2 분기~하반기부터는 국내 엔터사들의 중국 본토 재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국 엔터 시장이 다시 열리면 누가 제일 수혜일까? 과거 사드 사태 이전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티스트들일까?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사드 사태 이후 누가 'NEXT'인가에 가장 관심이 많다. BTS 를 필두로 '세븐틴' 등 다수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여기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스타까지 보유한 하이브가 가장 큰 수혜가 아니겠는가!

또한 하이브는 중국 본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엔터/미디어 플레이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은 하이브에게 추가적인 실적 상승과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투자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40,000 원 제시

2021 년 실적은 매출액 12,234 억원 (YoY +53.6%), 영업이익 2,528 억원 (YoY +77.4%, OPM 20.7%)를 전망한다. 목표주가 340,000 원은 P/E Valuation 방식을 통해, 2021~22 년 예상 평균 EPS 5,687 원에 Target PER 60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약 25~40 배의 Multiple 을 적용 받는다. 하이브는 기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독점적인 위치와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위버스' 플랫폼으로 인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플랫폼 Multiple 을 적용 받아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60 배의 Multiple 을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산출하였다.

표 1. 하이브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	4Q21	2019	2020	2021F	2022F
매출액	1,386.0	1,554.0	1,899.9	3,123.0	1,511.0	1,919.0	3,805.0	4,999.0	5,872.0	7,963.0	12,234.0	17,592.0
앨범(음반/음원)	-	-	468.0	1,408.0	450.0	512.0	1,571.0	1,211.0	1,083.0	3,206.0	3,744.0	4,077.0
공연(콘서트, 팬미팅)	-	-	31.0	-	-	-	-	52.0	1,911.0	34.0	52.0	430.0
광고, 출연료	-	-	140.3	138.0	148.0	162.0	179.0	195.0	201.0	468.0	684.0	885.0
MD & 라이선싱	-	-	1,002.0	673.0	620.0	815.0	912.0	1,554.0	1,699.0	2,591.0	3,901.0	5,995.0
콘텐츠	-	-	162.3	809.0	191.0	311.0	547.0	1,315.0	780.0	1,335.0	2,364.0	2,973.0
팬클럽 등 기타매출	-	-	96.3	95.0	102.0	119.0	131.0	148.0	198.0	329.0	500.0	684.0
Bighit America	-	-	-	-	-	-	465.0	524.0	-	-	989.0	2,548.0
영업이익	207.0	291.0	402.4	525.0	188.9	326.2	913.2	1,099.8	987.0	1,455.0	2,528.1	3,528.5
OPM	14.9%	18.7%	21.2%	16.8%	12.5%	17.0%	24.0%	22.0%	17.0%	18.0%	20.7%	20.1%
지배순이익	150.0	169.0	253.0	275.0	108.8	212.6	656.4	797.4	738.0	857.0	1,775.2	2,658.3
NPM	10.8%	10.9%	13.3%	8.8%	7.2%	11.1%	17.2%	16.0%	13.0%	11.0%	14.5%	15.1%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 2. Valuation Table

항목	추정치	비고
주당순이익(원)	5,687	2021~22F EPS 평균
Target P/E(배)	60.0	
적정주가(원)	341,220	
목표주가(원)	340,000	
현재주가(원)	242,000	
상승여력(%)	40.5%	

자료: 하이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자산총계	2,055	3,630	19,244	19,631	24,911
유동자산	1,717	2,947	13,893	8,742	12,855
현금및현금성자산	581	1,608	3,802	312	3,138
단기금융자산	471	42	7,830	7,756	7,65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14	962	1,167	2,111	432
재고자산	57	130	620	710	832
비유동자산	338	683	5,352	2,739	2,625
장기금융자산	51	123	324	421	240
관계기업등투자자산	32	23	13	17	14
유형자산	88	82	484	320	299
무형자산	63	257	2,884	1,981	2,072
부채총계	1,183	1,895	7,255	8,183	8,504
유동부채	1,055	1,746	2,962	1,951	1,812
단기차입부채	123	114	206	206	206
기타단기금융부채	46	0	0	0	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64	853	1,419	882	1,521
비유동부채	128	149	4,293	3,603	842
장기차입부채	49	31	3,225	1,541	4,123
기타장기금융부채	0	0	0	0	0
자본총계*	873	1,735	11,989	11,448	16,407
지배주주지분*	873	1,742	11,953	11,421	16,377
비지배주주지분	0	-7	36	27	30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자본총계임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매출액	3,014	5,872	7,963	12,234	17,592
매출원가	1,900	3,857	4,215	5,724	8,286
매출총이익	1,114	2,015	3,747	6,510	9,306
판매비와관리비	315	1,028	2,292	3,982	5,777
영업이익	799	987	1,455	2,528	3,528
EBITDA	839	1,081	1,805	2,528	3,528
비영업손익	-1,284	-3	-193	-180	-184
이자수익	5	5	21	64	72
이자비용	16	13	39	200	208
배당수익	0	0	0	0	0
외환손익	9	34	-124	0	-12
관계기업등관련손익	-1	-9	-16	-20	-24
기타비영업손익	-1,280	-19	-34	-24	-12
세전계속사업이익	-484	985	1,262	2,348	3,344
법인세비용	220	261	392	657	936
연결실체변동관련손익	0	0	0	0	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05	724	871	1,691	2,408
지배주주순이익*	-705	738	857	1,775	2,649
비지배주주순이익	0	-14	13	-85	-241
기타포괄손익	-1	0	-4	0	0
총포괄손익	-705	724	867	1,691	2,408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임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47	917	1,167	1,740	868
당기순이익	-484	985	1,262	1,691	2,408
현금유입(유출)이없는수익(비용)	1,339	187	613	813	1,108
자산상각비	40	93	349	412	445
영업자산부채변동	27	47	-258	-764	-641
매출채권및기타채권감소(증가)	-399	-439	-198	-212	-119
재고자산감소(증가)	-57	-84	-536	-82	-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증가(감소)	133	110	86	-101	65
투자활동현금흐름	-451	122	-10,224	-20	-24
투자활동현금유입액	717	1,094	1,249	1,156	954
유형자산	0	0	0	0	0
무형자산	0	0	0	0	0
투자활동현금유출액	1,168	972	11,473	717	478
유형자산	66	48	395	156	64
무형자산	72	16	127	55	67
재무활동현금흐름	-14	-14	11,334	-709	-32
재무활동현금유입액	3	22	11,490	85	41
단기차입부채	0	0	0	0	0
장기차입부채	3	0	2,001	-1,134	52
재무활동현금유출액	17	36	156	-10	8
단기차입부채	0	0	0	0	0
장기차입부채	17	36	146	-12	9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연결법위변동효과	0	0	0	0	0
환율변동효과	3	3	-82	2	6
현금변동	286	1,027	2,195	1,014	812
기초현금	295	581	1,608	3,802	4,816
기말현금	581	1,608	3,802	4,816	5,628

자료: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투자지표

(단위: 원, %,)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주당지표 및 주가배수					
EPS*	-3,373	2,951	2,984	4,983	6,998
BPS*	4,177	6,962	41,604	38,537	43,267
CFPS	3,575	3,666	4,061	4,884	2,292
SPS	14,427	23,470	27,715	34,342	46,476
EBITDAPS	4,017	4,319	6,281	7,097	9,322
DPS (보통, 현금)	0	0	0	0	0
배당수익률 (보통, 현금)	0.0	0.0	0.0	0.0	0.0
배당성향 (보통, 현금)	0.0	0.0	0.0	0.0	0.0
PER*	0.0	0.0	66.5	51.5	34.5
PBR*	0.0	0.0	4.8	6.7	5.6
PCFR	0.0	0.0	48.9	52.5	105.4
PSR	0.0	0.0	7.2	7.5	5.2
EV/EBITDA	0.0	0.0	31.6	36.1	25.9
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226.2	94.9	35.6	53.6	43.8
영업이익증가율	145.6	23.5	47.4	73.7	39.6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적전	흑전	20.2	94.2	42.4
매출총이익률	37.0	34.3	47.1	53.2	52.9
영업이익률	26.5	16.8	18.3	20.7	20.1
EBITDA이익률	27.8	18.4	22.7	20.7	20.1
지배주주순이익률*	-23.4	12.3	10.9	13.8	13.7
ROA	59.9	34.7	12.7	13.1	18.4
ROE	-110.3	56.5	12.5	13.8	17.6
ROIC	858.5	157.3	38.5	37.6	38.8
부채비율	135.5	109.2	60.5	39.5	17.0
차입금비율	19.6	8.4	28.6	24.9	20.9
순차입금비율	-52.6	-84.3	-62.0	-54.0	-45.3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 및 자본총계 기준임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지난 6 개월간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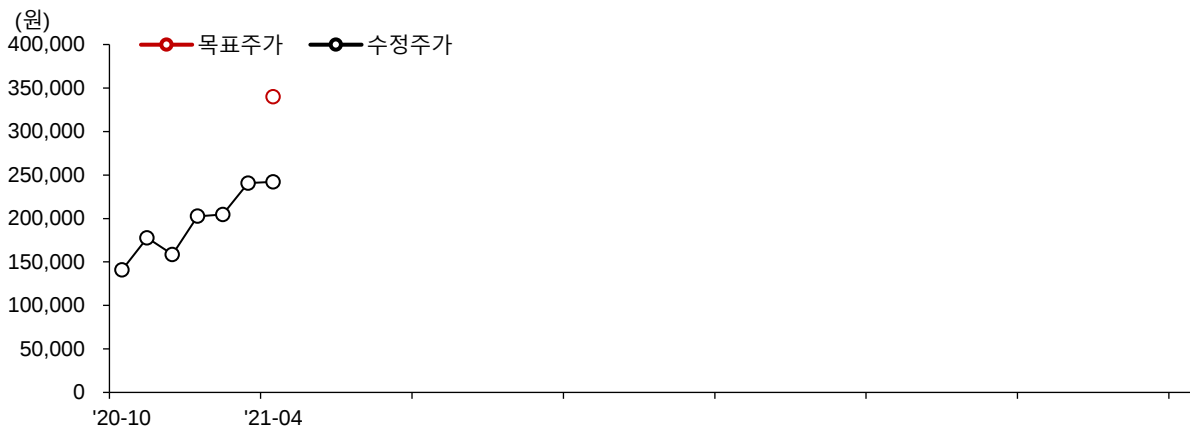
▶ 최근 2 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하이브(352820)

일자	2021-04-21
투자의견	BUY(신규)
목표주가	340,000 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 과리율 산정: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 년이며 수정주가를 적용

▶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기업

BUY (매수)	향후 12 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상
HOLD (중립)	향후 12 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 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 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회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 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 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 (기준일 : 2021.03.31)

BUY (매수)	100.0%
HOLD (보유/중립)	0.0%
SELL (매도)	0.0%
합계	100.0%